

진안홍삼축제 즐겨라~

슬로건 확정 본격 추진 돌입... 10월 18일~21일 개최

진안군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2018 진안홍삼축제의 슬로건을 '즐거라~진안! 마셔라~홍삼! 달려라~청춘!'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진안홍삼축제 추진에 돌입했다.

진안홍삼축제는 고려홍삼의 명맥을 지키고 있는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 홍삼을 통해 주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젊은이들이 터를 닦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군 대표축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축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높이고 좀 더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발굴해 문화관광부 대표축제로 선정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홍삼축제추진위원회를 운영총괄분과, 홍삼컨텐츠분과, 삼·떡거리분과, 문화홍보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하여 타 지역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분과별로 실시하고 분과별 간담회를 통해 완성도 높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경종 진안홍삼축제추진 위원장은



진안군은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실시되는 2018 진안홍삼축제의 슬로건을 '즐거라~진안! 마셔라~홍삼! 달려라~청춘!'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진안홍삼축제 추진에 돌입했다. 사진은 외국인도 함께 즐기는 홍삼캔 탐방기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현대식홍삼증상체험, 홍삼가래떡, 홍삼시탕나시, 청춘나이트, 홍삼가래떡, 홍삼캔 찜기체험 등에 대해 좀 더 화려한 재미 요소를 가미하고, 진안홍삼의 매력

에 빠질 수 있는 역동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신규 발굴할 계획이다."며 "10월 18일부터 열리는 2018 진안홍삼축제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호스피스 전문 의료봉사자 양성 눈길

내달 말까지 5회 이론·2회 실습 진행

지역의 초고령 현실을 고려한 무주군의 '호스피스 전문 의료봉사자 양성 교육'이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무주군에 따르면 한국호스피스협회 지원을 받아 무주군자원봉사센터(정진욱 센터장)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내달 말까지 7차(5회 이론, 2회 실습)에 걸쳐 실시(매주 목요일 4시간)될 예정이다.

무주군자원봉사센터 홍진홍 사무국장은 "호스피스 전문 의료봉사자 교육은 고독사 예방과 죽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만들고 말기환자를 도울 수 있는 전문봉사자를 양성한다

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입종을 앞둔 말기환자가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돕는 역할인 만큼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교육을 진행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 첫 날인 19일에는 한국호스피스협회 송미옥 국제호스피스 연구소장이 호스피스의 철학과 전인의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등에 대해 강의했으며 오는 26일에는 양성 통증관리와 증상관리에 대해, 5월 3일에는 임종돌봄과 심리사회적 돌봄에 대해, 10일에는 호스피스 환자의 영적상태와 돌봄, 17일에는 말기환

자에 대한 기본 간호와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5회에 걸친 이론 교육이 끝나면 24일과 31일 전주 엠마오사랑병원에서 실습교육이 진행된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김미경 자원봉사 담당 주무관은 "무주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1%를 넘어 이미 초 고령사회에 진입을 한 상태"이며 "사회적 돌봄이 절실해지는 상황에서 호스피스 전문 의료봉사자 양성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군에서도 많은 분들이 봉사자로 참여하고 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가정과 기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농작물 냉해피해 본격 점검

장수군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삼재운으로 농작물 냉해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냉해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이 기간 지역 최저기온이 -5~ -1°C로 내려가 개화 또

는 발아 중인 농작물에 냉해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삼, 사과, 더덕, 작약, 블루베리 등 이삼재운 관련 총 486건 363ha의 재해피해가 신고 됐다.

이로 인한 피해 농가는 읍·면사무

소에 빠짐없이 신고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군은 20일까지 재해신고 접수 받고 사실조사, 표본조사,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피해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정도와 피해율을 파악,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읍민의 장 수상자 5명 확정

- 문화체육장 강준희씨
- 공익장 김상영씨
- 산업근로장 김익수씨
- 애향장 노철호씨
- 효열장 이매화씨



문화체육 강준희



공익장 김상영



산업근로 김익수



애향장 노철호



효열장 이매화

진안군 진안읍은 18일 읍민의장 선정심의회를 열고 제18회 진안읍민의 장 수상자 5명을 확정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장 강준희(56), 공익장 김상영(71), 산업근로장 김익수(70), 애향장 노철호(61), 효열장 이매화(여, 46)씨를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

문화체육장에 선정된 강준희씨는 진안읍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연임하면서 체육발전을 위해 앞장섰다. 특히 진안민간재설지원단 및 재난예방 민간에찰단으로 활동하는 한편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의 힘을 기울였다.

공익장 김상영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안읍 주민자치위원장과 진안군 주민자치협의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진안군노인회 노인대학장을 역임하며 평생학습을 통한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헌신했다.

산업근로장 김익수씨는 진안읍 양지마을 평강팍스튜디오를 운영하며 2007년에는 농촌체험교육농장으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다. 또한 지역과 연계한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애향장 노철호씨는 진안읍 연정리 출신으로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객지에서 생활하였지

만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향토애로 꽃잔디 축제 초기 추진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의 특색 있는 축제로 만들었다. 또한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불우한 향우들에게 향우사랑을 실천하고 특히 행정과 재경 향우회 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역할을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효열장 이매화씨는 중국 출생자로 20세에 한국으로 건너와 편향 출신 시부모를 수십 년간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배우자가 마을 이장으로 지역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내조에 힘썼다. 또한 경로당 식사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경로친화사업과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날 선정된 읍민의 장 수상자들은 오는 5월 1일 진안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제18회 읍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관광객 유치 홍보캠페인

장수군은 19일 경북 청도휴게소에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및 봄 여행주간(4월28일~5월13일)'을 맞아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영호남 교류 확대와 고속도로 주변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시·군에서 20여명이 합동으로 참여해 관광지도, 관광 홍보물품 배부 등 분별 관광객에게 지역을 소개하는 뜻 깊은 행사였다.

특히 한 장의 카드로 전북지역 관광

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 카드와 2018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제12회 사과관람우랑 축제(9월14~9월16일) 등을 적극 홍보하며 관광객 유치에 주력했다.

군 관계자는 "2018년 전라도 방문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고속도로 인접 타 시군과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홍보 마케팅에 참여해 관광객 유치와 관광 이미지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매아리

4.19 이기태 열사 추모식 개최

故 이기태 열사 추모식이 19일 영동군 학산면 봉소리 임치마을(추모비 앞)에서 열렸다.

4.19혁명 제58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 박세복 영동군수와 영동군의회 정찬택 의장, 무주문화원 맹장상 원장과 영동문화원 배광식 원장을 비롯한 유족들과 두 지역 기관사회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례와 분향과 헌화의 시간을 가지며 이기태 열사를 추모했다.

황 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반 백년이 지났어도 그날의 정의, 용기, 희생은 우리를 가슴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당신의 일생이 후손들 마음에 더 깊이 새겨져 당신이 나고 자란 영동과 무주를 키우고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故 이기태 열사는 충북 영동군에서 태어나 무주초등학교와 무주중학교, 대전고등학교를 마친 후 경희대학교 법대에 입학했으며, 재학 중 3.15 부정선거와 민주항쟁에 맞서다 24세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무주군 무주읍 지남공원에 '민주의 선봉 4.19 혁명 기념비'이 서있다. 기념비는 1960년 7월 당시 재경무주학우회가 이기태 열사의 민주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귀감으로 삼기 위해 무주중학교 정문 앞에 세웠던 것으로 1992년 도시계획에 의해 이곳으로 이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노지수박·가을배추 최저가격 보장사업 설명회

진안군은 19일 진안공공법인 회의실에서 수박공선출하회 임원과 농협, 행정 등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삼농정 대표사업인 '2018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도청 친환경유통과 김영옥 주무관이 사업의 주요내용과 절차 등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은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품목은 노지수박, 가을배추이며, 진안군 농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에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지원범위는 1,000㎡(300평)~10,000㎡(3,000평)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추후 일정(노지수박 신청기간 : 4.1 ~ 6.30)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조공법인,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ATV / 버기카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 일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 국제대회 디스 잡기 및 우승
-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 국가대표 코치 역임
- 일본 신타포 국제대회 참가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취득

-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취득
-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